

을 못 사는  
이라고 말했다  
한 노인들을  
시작했다.  
방문이 끊  
고 있다. 대  
편의를 제

우리종합  
인 환자수

내 한 버스  
지로는 마냥  
들이 답답한

버스의 운  
까지다.

양손에 마지  
을 올라오는  
올 때가 한  
사회를 위해  
업체들은 이  
지...”

조은아 기자

한 직접적인 고리

LA에 있는 신혜원, 케네스 한(한

일보사 창간 26주년 기념 LA필하모니 초청 특별 콘서트를  
하루 앞두고 바이얼리니스트 오주영군이 에사-페카 샬로넨(사진 오른쪽 뒷모습)의 지휘에 맞춰 리허설을 하고 있  
다.

<이영표 기자>

# 일제징용 소송 본격화

## 재판부, 증거수집 착수 지시

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  
국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집단 소  
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.

LA에 있는 신혜원, 케네스 한(한  
국명 태호),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미  
국내 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  
호인단은 26일 오전 LA지방법원 59  
법정(브루스 미셀판사)에서 피고측  
변호인단과 절차심리를 갖고 앞으로  
의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.

이날 컨퍼런스에서 피고측 변호인

단은 정재윤씨 등 집단소송 진행을  
12월13일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  
청했으나 미셀판사는 원고측 변호인  
단에게 소송진행에 관한 증거수집을  
착수할 것을 지시했다.

또한 미셀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에  
게 앞으로의 소송진행 및 증인심문  
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오는 23  
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.

이날 피고측 변호인단은 미군포로  
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

송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(반  
워커 판사)에 의해 기각당한 것과 현  
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계류중  
인 한인들의 일본기업 상대 소송 4건  
에 대한 판결을 이유로 들어 판결이  
나오는 12월13일까지 소송진행을 보  
류할 것을 요청했다.

원고측 변호인단은 ▲샌프란시스  
코 연방지법에 계류중인 한인관련 케  
이스와 미군 전쟁포로 케이스는 이번  
소송건과 구분되어야 하며 ▲LA연  
방지법(조지 킹 판사)에서 주지법의  
재판권을 가질 것을 이미 명령받았음  
으로 소송진행을 늦출 수 없다고 주  
장했다.

신혜원변호사는 “한국은 당시 평  
화협정시 일본국 식민지에서 독립국  
으로 이정은 바닷을 뿐 연합국이 이

## 저기르 이사 오지이